

# “신 교육통해 새시대 주역 양성”

## 선우도량서 ‘교육의 세계화...’ 특강- 박세일 청와대 정책수석

지난해 청와대에 임성한 뒤로는 너무나 바쁜 생활로 말미암아 좀처럼 외부 강단에 나서지 못했던 박세일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이 모처럼 선우도량 수련결사에서 ‘교육의 세계화를 위한 대통령의 신 교육구상’을 주제로 1시간여 동안 특강을 했다. 박세일 정책수석은 정부의 교육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신교육정책뿐 아니라 국가발전정책을 기초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 22일 남원 실상사에서 박세일 정책수석을 특강지진 만났다.

리는 새로운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없습니다.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교육관·교육원리가 나와서 이것을 바탕으로 교육의 기본틀을 다시 짜자는 것이 ‘신교육’입니다.

—우리 사회의 교육열은 세계에서도 알아줄 정도지만 암기위주·입시위주교육,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등 내적인 충실도에 있어서는 오히려 많이 뒤쳐진 이른바 ‘중요속의 빈곤’이랄 수 있겠소. 그러한 점에서 ‘신교육’이 구체적으로



이정규 (남원시장)



### 나의 수행일기

인간은 광범하고 일상적인 삶 속에서 어떤 불행이 없을 때는 종교에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지만, 어느 순간 자신뿐 아니라 자신과 관련된 타인에게 어떤 역경과 위기가 닥쳤을 때 일반적으로 종교에 관심을 갖는다고 한다.

내가 처음 절과 인연을 맺은 것은 집 가까이 있는 절에 놀이삼아 드나들곤 했던 어린 시절이었다. 그 절은 청룡사였는데 청아한 목탁소리, 산사의 아늑함, 절 건물의 웅장함, 절을 따라 신작로를 갈다보면 말없이 피어있는 들국화의 추억 등이 지금도 생 각난다.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마치고 나서, 바쁜 일상생활과 공직사회에서 활동하고부터는 절에 대한 기억을 어슴푸레 잊고 살았다. 그러나 60년대초부터 70년대에 이르기

까지였는데, 사고 순간 차는 크게 망가져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상태가 되었으나 나의 신체에는 큰 이상이 없이 기적적인 삶을 찾게 되었다.

이 사고를 계기로 종교를, 즉 불교를 다시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종교의 헤아릴 수 없는 무한한 깊이에 대한 공부가 하고 싶어 지면서 신앙심이 두터워져 갔다.

요즘 사회를 뚫어 보면 물질만능의 광배, 자기 뒀만 쟁기는 이기주의, 반인륜적 범죄가 난무하는 시대라고 한다. 강력한 법적 제재와 반복적 의식교육이 강조되지만

## “무소유의 마음으로 사세요”

### 아내 법문이 심금울려...불자다운 행실에 힘써

까지 국가정책이 가난을 벗어나 오직 잘사는 길은 기계문명의 도입과 급속한 공업과 정책으로 양적팽창과 물질적 풍요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흐름이 있었다. 나 자신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앞만 보고 뛰어 갔다.



하루에도 수없이 매스컴을 통해 사건 사고 소식이 우리의 귀청을 울리고 슬픔만을 안겨 주고 있다. 이 모든 것이 개인의 이기주의와 사욕에서 비롯된다고 볼때 불교의 무소유의 정신이 모든 중생의 마음에 전달되어 청정한

그 대가로 인간정신은 더욱 황폐해져만 갔다. 그 와중에서도 불교는 편견없이 없이 대중과 가까이 하는 종교로서, 윤리도덕 확립과 번뇌와 좌절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정신적 지주로서 그 본분을 다해 왔다는 생각은 결코 잊지 않고 있었다.

그러던 80년대 초 어느날 급변하는 시대상황 속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회기적 전환점이 있었다. 고등학교때부터 불교를 믿어 왔던 아내가 말없이 내준 “참고 인쇄하며 무소유의 마음으로 사세요”라는 법문 한 구절이 어느 순간 다가와 나의 심금을 울리며 저절로 절의 문턱에 나 자신을 이끄는 계기가 되었다.

불교 입문 초기에는 불교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과 신비감만 있을뿐 정립된 종교관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마음에 혼란과 갈등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어느날 공직생활중 업무차 면사무소에 출장을 갔다 돌아오는 길에 갑작스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사고지점은 험난한 고

사회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나 자신 지금 이순간 지역 살림을 꾸려가고 있는 민선시장으로서 극심한 지역이기주의, 집단민원 등의 소용돌이와 서로가 극과 극을 달리는 대립 속에서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는 불교의 중용사상은 산적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 주는데 든든한 기반이 되어오고 있다.

직장내에서는 책임자로서, 시민에게는 심부름꾼으로서 어떤 특정종교를 공개적으로 선전할 포교할 수 없지만 불교사상에 기초를 둔 정신과 마음으로 불자다운 행실을 유지함으로써 알게 모르게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마음에 불교의 함 뜻을 스며들게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 인간은 태어났면서부터 부처님의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말씀처럼 고귀한 정신세계를 마음에 담고 있을 때 무질서, 불신감, 부정부패, 인명경시, 각종 재난사고 등의 사회병폐도 사라질 것으로 믿고 있다.

## 수요 인터뷰

—어떻게 선우도량 수련결사에서 특강을 하게 되었는지 그 인연이 궁금합니다.

▲수행자로서 올곧은 삶을 지향하는 스님들의 결사인 선우도량에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았습니다. 제가 서울대 총보회 출신으로 선우도량의 법성스님은 후배되는 인연도 있습니다. 마침 선우도량에서 교육을 주제로 한 수련결사를 하신다고 하고 또한 초청을 해주어 좋은 말씀도 들을겸 해서 왔는데 바쁘다보니 강의만 하고 가게 됐습니다.

**약력**

- 1948년 경남 말양 생
- 1970년 서울대 법대 졸업
- 1980년 미국 코넬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 서울대 법대 교수
- 교육개혁위원회 위원(1994~)
- 저서 <한국경제의 이해>(한국사회와 시민의식)<교육 대 개혁론> 등

## 획일적 교육지양 인성개발...山寺는 국민 도량 “개혁은 차세대위한 산고”...인내로 21세기 대비

—강단에 서다 청와대에 들어가셨는데 생활에 많은 변화가 있으셨지요.

▲학교에 있을 때는 강의에 주로 이상론을 담았지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정책 입안하는 곳에 들어가니까 그 방향을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어떻게 현실에 구체화시키느냐 하는 점을 중시하게 되더군요. 더구나 사회전체 수준이란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어떤 것인지 소개해 주시죠.

▲첫째는 획일적 교육을 벗고 창의력 배양, 타고난 소질 개발, 인성개발의 다양화 교육을 시키자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교육자가 선택한 교육내용을 피교육자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했던 공급자 중심의 교육에서 수요자 선택의 교육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또 규제위주에서 자율중심의 교육, 수월성(秀越性)과 보편성간의 조화를 추구하는 교육, 첨단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내용입니다.

예를들어 앞으로는 멀티미디어 교육 등을 이용해 미국·일본·북경 등의 가장 우수한 교수의 강의를 전국의 학생들이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국가차원의 ‘멀티미디어 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해 개인 학교 연구기관 기업 및 공공단체 사이에 유기적·효율적 학습정보망이 구축되는 것이지요.

—돈기만 해도 가슴이 뛰는 획기적인 일입니다. 이같은 교육개혁이 있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할텐데요.

▲교육이개발로 21세기를 여는 핵심적

사회자본이라는 인식하에 교육의 틀을 바꾸는 데 드는 투자와 지원이아말로 꼭 필요한 것이지요. GNP(국민총생산액)의 5%를 공교육비로 투자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이는 지켜질 것입니다.

**“시간만하면 사찰 참배해요”**

—문민정부도 지금 그러한 비판을 받고 있지만 조계종은 지난해 ‘개혁’이 일어났고 개혁에 대한 열화와 같은 원력과 추진으로 개혁종단이 들어섰는데 개혁이 완성되기도 전에 지금 지지부진해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일부 우려가 있습니다.

▲개혁이란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개혁이란 미래의 차세대를 위해 현재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관례대로 해오던 것을 바꾸자는 개혁은 생각으로는 찬성하면서도 막상 몸으로 겪어보면 반대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요. 개혁이 성공하려면 개혁을 끌고 가는 사람들이 더욱 의지를 가지고 단합하고 일반 사람들도 고통·불편을 참고, 개혁을 이끄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대통령이 장로이고 내각에 기독교

인이 많다는 이야기와 더불어 불교가 여러 면에 있어 정부로부터 차별받는다는 일종의 피해의식(?)같은 것이 불교내에 있습니다. 대통령 측근에 계시는 입장에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기독교 신자들은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내세우는데 반해 불자들은 종교를 잘 나타내지 않아 그렇지 장·차관중에도 불자가 상당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정책 입안 수립에 있어 종교색이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지요.

—실상사는 처음이십니까.

▲시간만 있으면 절에 참배 다녔을 정도로 절에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만 청와대에 들어가서부터는 너무 바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늘 절을 담고 싶습니다.

실상사에 오니까 이렇게 훌륭한 산사에서 방학중 청소년이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우리 것을 배우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해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 장소, 우리 것을 알게 하는 곳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수요자가 선택하는 교육

—‘교육의 세계화를 위한 대통령의 신 교육 구상’에서 교육의 세계화란 어떤 것입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살아왔던 근대화·산업화 시대(20세기)의 교육과 앞으로 다가올 세계화·정보화 시대(21세기)의 교육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얼마 안남긴 지금 세계는 경쟁적으로 개혁을 하고 있고 특히 중점을 두는 것이 교육개혁입니다.

양적 변화의 시대가 아니라 질적 전환의 시대, 문명의 대전환 시대를 맞아 종전의 제도와 관행, 의식을 가지고는 우

**단청·불상·탱화·개금**

※문화재 단청기술 제82호※

- 주 소: 서울시 성동구 송정동 28-18 6층 4반
- 문의처: 468-8329
- 호출기: 012-307-8329

박석연 합장

**봉축 현수막 전문 제작**

공장 직영

**삼보기업**

전화: (02)279-2715  
팩스: (02)275-3739

**연꽃잉어화**

—전문작품—

연꽃잉어화는 옛부터 절간의 생기와 영원의 활기를 가져오는 길화로 전해오는 바 생동감을 주는 산악 풍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 실내외 벽화·벽문 및 액자와 작품
- 불사용작품(作品)은 주문에 의하여 봉사가 특별 작품해드립니다.

새해 지평·회복·어디나 그림만 또는 표구작품을 해드립니다

우인(宇仁)화실

서울 용산구 철거1가길 17-1 전화: (02)3273-0081  
온라인 국민은행 남원지점 822-24-0171-3281(주인)

**한민족**

**정통 신선도 수련법**

회원모집: 수시접수 (지방수련장 상담 환영)

수련과정: 단견호흡법, 철산법, 신선기공 36동작, 생식법, 벽곡법, 토굴에서 생활하는 법, 단식법

문의전화: (02)735-6795-6796  
팩스: (02)730-9298

서울 종로구 인사동 4-2 중원 B/D 4층

한국 신선도 협회 회장 이해창

오직 일념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석조각의 명문 동양석재**

- 일찍이 홍익대 조소과를 졸업하고
- 전통 불교문화 창달과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 최저의 비용으로 최고의 작품 제작을 일념으로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오니
- 대덕 스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성원 바랍니다.

조각가 이규동 합장  
대표 이규영

동양석재 주간: (0357)541-4705  
야간: (0351)847-2001

**탁자, 단집, 법상, 문짝, 불교조각**

주요 불사 일익

- 불전(법당) 대웅전·법당·경상
- 불전(법당) 대웅전·수미단·문짝
- 서울(법당) 법당·수미단·문짝·복합판
- 승려(법당) 대웅전·문짝
- 불전(법당) 대웅전·법부전·문짝
- 상원(법당) 대웅전·문짝·법당
- 포천(법당) 대웅전·문짝·법당
- 단양(법당) 대웅전·수미단·문짝·복합판
- 서울(법당) 회관·법사·그리·다수 사항

대진(전승)공예사

번호: 011-282-4609  
지: 02-248-4609  
공: 0346-571-9538  
호: 012-10-1401

趙貴玉 합장

**사찰인수 증설에 참여하실 분**

※ 휴게소·가든 매도분 ※

- 사찰 부지 및 도로 옆 휴게소 가든 건물 55평(현재 청정중)
- 대지 주차장 300평 대도가 5억원 신축 모델 부지 1,000평
- 가든 휴게소 건물 2·3층 모델 증축 가능지
- 농산물·일용생활품 매점 가능지
- 주차장 도로부지 120평 포함

연락처 집(조식) 0441-851-3866  
사찰(12사) 0441-853-2896

※ 불교신자·독지가 환영

**법당 신축 협찬자 구함**

—충주댐 강변 진입도로변 별정지 요지

계명산 석굴암 묘사채 시설지

- 석굴암 본존 석가모니 불상 7자 높이, 굴 50평
- 석담 5층담 22자 높이
- 관세음보살상 15자 높이
- 아미타불 좌상 5자 높이
- 묘사채 2층 방(6) 35평형
- “ 1층 방(3) ”

—대지 705평 도로 포장 시설지

- 연 3억 5천 투자 시설된 곳 이후 5억 투자할 분 구함
- 향후 법당, 대웅전 증축, 묘사채 및 산신각 증축 계획
- 신축사찰, 신축지 1,000평 내외 양도 가능

※ 사찰 운영할 보살스님, 독지가, 세사철개발 운영하실 분 환영

**관음손**

어린이 포교를 위한 불교용품·불교서적 판매

어린이를 위한 선법법화·영구 영가 주문제작

비디오·카드·실법법화·단체용품 기획제작

720-1147(~8)

**현미떡기 비법**

떡기어려워? 현미이렇게 떡이면 된다!

2분도면 (떡기어렵다)  
3분도면 (떡기쉽다)  
4분도면 (떡기더쉽다)  
5분도면 (떡기더더쉽다)  
6분도면 (떡기더더더쉽다)  
백10도면 (떡이 전혀 없다)

**“입맛대로 주문, 배달”**

조상의 얼을 지키는  
쌀바르게떡기은동중앙회

TEL (02)231-5421-2  
235-1846-7